

日帝強占期 朝鮮神社의 場所와 權力: 全州神社를 事例로

최진성*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Place of the Jeonju Shrine in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Jin-Seong Choi*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의 神社와 관련해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장소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조선 신사는 일제의 內鮮一體를 달성키 위한 식민지배 전략 중 하나로서 공간적으로는 중일전쟁(1937년) 이전까지 개항장을 비롯한 전국의 중요 도시들에 51개의 신사들이 세워졌으며, 당시의 철도체계와 연계해서 해안과 내륙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한 일종의 “신사 네트워크”였다. 또한 시각적으로 이 신사들은 도시의 조망이 탁월한 구릉에 대부분 입지하였으며, 일본인 거류지를 포함한 식민지 경관들과 인접하였다. 이 신사들에 안치된 天照大神과 明治天皇은 응시의 주체로서 지배자를, 그리고 피식민지인들은 응시의 대상으로 전략하였음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신사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감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사례지역인 전주는 공간적으로 호남평야의 중심도시로서 전라선 철도와 연계되었다. 또한 전주신사는 전주읍성의 서문 밖에 위치한 多佳山(65m) 구릉의 정상에 세워져 전망이 탁월하였으며, 일본인 거류지를 비롯한 식민지 경관들과 인접하였다. 그런데 광복이 되자 전주신사가 시민들에 의해 해체되었다. 이것은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한 시민들의 저항 담론의 결과였다. 그 장소에는 대신 충혼탑과 가람 시비가 세워짐으로써 다가산은 일제의 신사가 세워졌던 장소에서 국가 및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경관을 통해 장소에 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이념, 경관, 장소, 신사, 조망이 탁월한 구릉, 정체성

Abstract : This study of Shintoism is to inquir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political ideology and place of Shinto shrine(神社). In Korea, the Shinto shrine was a place of the center of Japanese colonial policy that symbolized the goal of Japanese Imperialism. This was one of the strategies of "Japan and Korea Are One". Before the China and Japan War in 1937, the number of shrines amounted to 51 sites, 12 of them were closely related to open ports, and the others were located at inland major cities. They also were associated with railroad transportation systems that tied coast and inland major cities. This spatial distribution of shrines was so called "Shrine Network" that was essential in tracing Japanese invasion into Korea. It was an imperial place where Japanese residence and colonial landscape were combined together to show the strength of Japanese Imperialism. Most of shrines were located at a hill with a view on the slope of a mountain and honored Goddess Amaterasu and the Meiji Emperor. I presume from these facts that Shinto Shrine was a supervisory organization for strategic purpose. The Jeonju Shrine was located on a small hill, Dagsan(65m) where commanded a splendid view of Jeonju city and honored Goddess Amaterasu and the Meiji Emperor. It was a place which was adjacent to Japanese residence and colonial landscape. The Dagsan was changed as a symbolic site for Japanese Imperialism. But,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social-political symbol of the hill was changed. By the strong will of civil, there was a monument to the loyal dead and the national poet, Yi Byeng-gi placed for national identity at the site of the demolished Jeonju Shrine. Dagsan as a place of national identity, shows the symbolic decolonization and the changing ideology. After all, this shows that political ideology is represented in a place with landscape.

Key Words : ideology, landscape, place, Shinto shrine, a hill with a magnificent view, identity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의 특성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고 믿는 상징적 실체가 종교경관이며, 종교경관의 이러한 상징성은 그 종교공동체의 구성원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

려는 선교전략과 관련이 있다.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일본인들의 居留地에 형성되었던 神道(국가신도)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비롯된 순수한 종교적 선교전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신도의 전개양상은 이러한 순수한 종교적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식민지 지배

*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Jeonju Technical High School Teacher)(cjspis@hanmail.net)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화 이전부터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망각시키기 위해 조선 국왕들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유교적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한일병합 이후에는 이러한 입장을 바꾸어 일왕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심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더군다나 일제는 중일전쟁(1937년)과 태평양전쟁(1941년)에 개입하면서 징집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일본 천황(이후부터는 일왕이라고 함)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심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¹⁾

이미 일본은 자국에서 메이지 시대에 확립된 國家神道²⁾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를 확립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국가경영에 神이라는 신비성을 끌어들이어 이를 국민에게 주입시켰다(Shinji Ueda, 2004, 94-95). 이를 바탕으로 메이지 정부의 지배계층들은 신도를 통한 자국민들의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고 나아가 천황 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일본에서 국가 신도를 통한 이와 같은 통치전략은 같은 문화를 공유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코드가 전혀 다른 조선인들은 비록 피식민지인의 신분으로 전락하였지만 일본인들보다 적어도 문화적으로 열등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데 일제의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일제는 경찰과 군대를 활용해 물리적 지배력을 확보하였음에도 조선인들을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신도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조선인들을 일왕에 대한 자발적인 존경심과 경외감을 갖는 臣民으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內鮮一體를 통한 식민지배의 영속화 역시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일제의 지배층은 자국의 전례를 참고해 한반도의 조선인들에게 신사를 활용한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적용하였다고 여겨진다(최원규, 1987, 260).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神社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사회적 지배전략이 신도 경관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종교경관의 속성상 그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계층의 이데올로기는 특정 종교경관에 반영되므로 신사에도 일제의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신도(국가신도)를 통해 사회의 통합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의 지배전략으로 신도를 이용했다고 보는 접근 방법의 적절성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일제가 조선에서 신도를 통해 이루려던 식민지 지배전략이 공간 또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먼저 일제가 한반도의 각지에 세웠던 신사들(Shinto Shrines)의 설립 과정을 철도 노선의 건설 과정과 관련해 분석하였다. 그것은 일제가 철도를 통해 신사들이 세워진 도시들과의 연계성을 높여 연고자 하였던 空間支配戰略 유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때문이다. 또한 일제의 이러한 공간적 지배전략의 결과로 형성된 신사들의 지리적 입지조건들을 분석하여 신사가 세워진 장소에 내재된 일제의 視覺支配戰略을 파악하였다. 셋째, 全州神社를 사례로 일제의 이러한 공간시각적 지배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지리학에서 일본 신도에 관한 연구는 이정면(Lee, 1989)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였는데, 그는 일본 神社와 神宮의 기원을 신라로 추정하고, 이들이 고대 한반도 이주민들(신라, 백제, 고구려계)에 의해 기타큐슈(北九州)를 거쳐 관서에서 관동지방까지 동해안을 따라 전파되었다고 추정하였다(임동권, 2004, 119-124). 이러한 근거로서 그는 주로 일본의 지명과 신사 및 제신들의 이름과 관련한 어원을 통해 유추하였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일본 신도에 대한 지리적 접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일제는 만주사변(1931년) 이전까지 이미 조선의 중요 도시들에 신사들을 설립하였으며, 1936년 8월의 신사제도 개정에서 一道一國弊社 설립 방침을 제시하였다(靑野正明 2003, 336). 그렇지만 일제는 충북, 황해, 평북, 함북 등 4도에 이를 설립하지 못한 채 패전하였으며, 광복이 되기 직전까지 62개소에만 신사들을 설립하였다(山口公一, 1998, 130).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총독부령에 의한 신사관계법

령 이전의 일본 거류민들이 설치한 51개 신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것은 1934년에 小山文雄이 「日本の神社」에서 언급한 神社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51개 신사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小山文雄, 1934). 그리고 1937년 이전에 세워진 神祠(읍면 단위의 규모가 작은 신사의 유형)들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전국적으로 그 숫자가 많아서 일괄해 살피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이와 같이 선정된 51개 神社들의 도시 내 위치 확인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1:10,000 지형도³⁾를 참고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지형도상에서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운 7개소를 제외한 42개소의 신사들을 대상으로 입지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전주신사 관련 자료는 답사와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2. 지배권력과 일본신사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년) 이후에 국민적 정체성을 근대적 내셔널리즘(nationalism) 방향으로 전환시킬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왕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일왕에 대한 비정치적이면서도 민간신앙적인 이미지를 정치적이면서 국가공동체의 표상으로 내세우려고 노력하였는데(Shinji Ueda, 2004, 97), 메이지 유신 초기부터 격심한 반정부 저항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루스 베네딕트, 2002, 159-161; 다카시 후지타니, 2003, 27-28).⁴⁾ 메이지정부가 위층 관료들은⁵⁾ 초기의 정세가 이처럼 불안했던 주요 요인을 그동안 일반 민중들이 천황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부적절한 이미지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천황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천황과 국신들을 숭배하게 만들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神道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국가의례를 제정해 조작하고 장려하였다. 메이지와 다이쇼(大正) 시대에 걸쳐 전국의 모든 신사에서 행해지는 의례에 국가적 의미를 부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최석영, 1998, 176; 한석정, 2003, 32-34).⁶⁾

메이지 시대의 통치자들은 이런 의례행사를 시각적인 경관으로 재현함으로써 그들이 장악한 국

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들은 신도경관과 관련된 장소들의 외관을 변형시키면서 새로운 기호들로 가득 찬 제국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특히, 신사와 관련해서는 국신, 역대 일왕, 국민적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신사를 새로 건축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일왕-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기억에 보탬이 되지 않는 신사들을 통폐합하였다.⁷⁾ 또한 그들은 국가적 신사(官幣大社) 입구에 도리이(鳥居)를 세우는 근대적 상징 행위를 이때부터 시작하였다(한석정, 2003, 43-44).

메이지 시대의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일왕이 일망감시적 국가의 정점에 있었으며, 그의 응시로 말미암아 영토와 국민의 진정한 대감독자임을 상징하는 효과를 의도하였다. 여기에서 일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치의 의례화에 신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메이지 시대의 지배계층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왕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방편에서 신도를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만들어 상징화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Shinji Ueda, 2004, 105-107).

그런데 일본의 신도를 활용한 이러한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통치전략이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면서는 근대 서구의 식민제국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성격이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제국주의국가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피식민지인들을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크리스티교로 개종시켜서 결국 종교를 통해 식민지를 지배하려고 의도하였지만, 일제처럼 피식민지 국민들을 자국 국왕의 臣民으로 삼으려고 종교를 동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한상일, 2004, 24-27; 신주백, 2004, 287-293).⁸⁾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전략의 바탕에는 일왕을 사공을 초월한 절대자로 신격화하려던 메이지 정부의 지배 계층들의 의도가 있었던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즉 메이지 시대의 지배 계층들은 그들만의 신화에 기초하여 천손(天照大神)의 자손들이 일본인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이다(신서균, 1999, 93-95; Shinji Ueda, 2004, 9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신도를 활용한 정치 사회적 통합전략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간적 통합전략으로서 메이지 유신 초기에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일왕이 순례하듯이 巡治를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국토 순례를 통한 순치라는 공식적 행사는 일왕의 근대적 이미지 쇄신이라는 시각적 효과까지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일왕의 공식적인 행사를 대신할 수 있는 상징적 권위를 신도가 계승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전국의 모든 신사들을 통폐합해 일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신도체계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둘째, 시각적이면서 상징적인 통합전략으로서 일본은 신도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화를 도모하였다. 즉 신사에 안치된 신들의 응시가 영토와 국민의 대감독자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상징적 효과를 위해서 神宮이나 신사 등에 일왕들이나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주로 안치시켰다. 그리고 그 시각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사를 웅장하게 건축하거나 야스쿠니 신사의 예처럼 도리이(鳥居) 등을 웅장하게 세웠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일본의 신도를 활용한 사회적 통합전략들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전략을 신사의 공간적인 측면과 시각적(상징적) 측면의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신도경관에 투영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푸코(Foucault)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정치적 도구로 보고, 모든 권력현상을 국가기구로만 설명하는 방식은 권력의 작용을 잘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권력을 억압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생산적,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틀로 보았다(양운덕, 2003, 18).⁹⁾ 이러한 관점은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라면 수긍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제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제의 모든 국가의례 및 행사들이 식민지 지배를 위한 억압기제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푸코가 말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작용한다는 관점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은 일제가 신도를 국가기구로 삼아 조선인들을 억누르고 금지하기 위한 감시도구로 활용했다고 여겼기 때문

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도를 활용한 일제의 지배 권력은 푸코가 언급한 ‘밑으로부터의 권력이 아닌 위로부터의 통속적인 지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도를 지배계급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보고, 그 경관의 설립자는 물론, 독자의 의도까지 읽어내려는 것이 본고의 접근 방법으로서, 神社를 하나의 텍스트로 삼고 해석하려는 것이다. 해석학에서는 어떤 텍스트를 작성한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알아내는 것을 원래의 목표로 삼는다면, 푸코 역시 담론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 저자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바르트(Roland Barthes)는 텍스트를 읽는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독자의 몫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자의 입장을 더 중요시하였다(최정우, 2003, 22). 본고에서도 이러한 바르트의 입장을 견지해 조선신사를 텍스트로 보고 독자의 입장까지 살펴보고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사라는 텍스트의 설립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의 의미 생산 또는 파괴에 참여하는 것은 텍스트가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에 순종 또는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최정우, 2003, 22-23), 신사라는 공간적 또는 시각적 감시기구에 사로잡힌 조선인들에게 강요되었던 재현 형식들의 이데올로기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적용되었던 공식문화 가운데 특히, 신사에 주목하여 신사의 장소적 특성을 이용한 일제의 공간시각적 전략을 파악하고, 나아가 광복 이후 그 장소성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3. 지배記號로서의 조선신사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천황제를 국가적 통합체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호들을 사용하여 천황체제를 이룩하였다. 그런데 이미 조선에서는 유교적 전통과 관련된 유교경관들이 지배적인 기호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제는 조선에서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호가 필요하였으며, 조선 전역에 세운 신사

의 존재는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호로서 종교를 빙자한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의도가 잠재되어 있었다(최석영, 1998, 173-178).¹⁰⁾ 이에 따라 조선신사들에는 일본 왕통의 시조인 天照大神과 明治天皇만을 안치함으로써 內鮮一體라는 일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의도하였다(박경식, 1986, 389). 따라서 조선의 신사는 일본 신사의 재현(representation)이되 새로운 공간에 적용되면서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전략적 목적에 따라 재구성된 기호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형식적인 의례였던 신사참배야말로 조선인들의 정신적 또는 종교적 동화정책의 일환이었으며, 학교에서의 신사참배는 교육과정의 핵심이기도 하였다(박경식, 1986, 390-402; 김재우, 1987, 237-242; 김승태, 1987, 314-320; 김순전·조성진, 2004, 238-242). 따라서 일체의 신사건립은 신사참배와 연결되었고, 신사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일체의 지배력 또한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신사를 지배기호라고 지칭하였으며, 여기에 내포된 일체의 지배전략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이 지배전략을 크게 공간적·시각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먼저 1934년까지 신사가 세워지는 도시들의 철도노선과의 관계를 통해 일체의 공간적 지배전략을, 그리고 신사가 세워진 각 도시들마다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해 일체의 상징적 지배전략을 파악하였다.

1) 공간적 지배記號로서의 조선신사

조선에 유입된 신도는 기존의 유교나 불교 또는 그리스도교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서비스 대상도 초기에는 일본인들로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 이전까지 조선에 세워진 신사는 모두 12곳으로 대부분 개항장(open port area)¹¹⁾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小山文雄, 1934, 43-46; 이정인, 1976, 36; 손정목, 1987, 111). 부산의 용두산신사(1876년)¹²⁾를 비롯해 원산신사(1880년), 인천신사(1883년), 목포신사(1897년)¹³⁾, 군산신사(1898년), 성진신사(1898년), 마산신사(1898년), 삼랑진신사 등

표 1. 1910년 이전에 조선에 건립된 신사

신사명	위 치	개항시기	설립년도	제 신	건립이유
용두산신사	부산 용두산 산록	1876	1609	天照大神, 大物主神	乙酉條約 때 부산 상주하는 일본인들이 항해의 안전을 위해 건립
원산신사	원산 일본인 거류지 인근	1880	1882	天照大神	일본거류민단이 천조대신 봉제 위해 건립
인천신사	인천 자유공원	1883	1890	天照大神, 明治天皇	일본거류민단이 천조대신, 명치천황 봉제 위해 건립
경성신사	왜성대 (남산) 공원	도성	1897	天照大神, 明治天皇	일본거류민단이 천조대신, 명치천황 봉제 위해 건립
군산신사	군산 월명공원	1899	1902	天照大神	일본거류민단이 어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건립
진남포신사	진남포 병참기지 인근	1897	1903	天照大神	일본거류민단이 천조대신 봉제 위해 건립
용천신사	평북 용천 병참기지 인근	점령지	1905	天照大神	러일전쟁 후 용암포 일본 육군점령지 내에 일본거류민단이 천조대신 봉제 위해 요배소 건립
대구신사	대구 달성공원	내륙거점	1906	天照大神	일본거류민단이 천조대신 봉제 위해 요배전 건립
대전신사	대전역 인근	내륙거점	1907	天照大神	일본거류민단이 敬神思想 진흥 위해 조영
성진신사	함북 성진	1898	1909	天照大神, 大物主命	일본인 11명이 세관 소유지를 임차하여 건립
마산신사	마산 일본인 거류지 인근	1899	1909	天照大神	일본거류민단이 천조대신 봉제 위해 건립
송도신사	송도공원	1897	1910	天照大神	일본거류민단이 천조대신 봉제 위해 건립

자료 : 小山文雄, 1934, 神社と朝鮮, 朝鮮佛教社, pp.124-128 참고해 정리

이 모두 개항장에 세워진 신사들이다. 또한 진남포(1897년)와 용천(용암포)은 각각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4~1905년)을 치루면서 일본군들이 병참기지로 점령한 지역들이다. 반면에 경성신사, 대구신사¹⁴⁾, 대전신사 등은 일본인들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들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운 신사들이다(정광하, 1997, 322-324).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내륙에 神社들이 건립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4년까지 모두 51개의 신사들이 세워졌는데, 대부분 이 당시에 세워진 철도 노선들이 통과되는 도시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박영재, 1996, 17).¹⁵⁾ 예컨대, 경부선(1905년)이 설립된 후에는 대전과 대구가, 경의선에는 개성, 해주, 의주, 신의주 등이, 호남선에는 이리, 태인, 정읍, 광주 등이, 그리고 전라선에는 대장, 삼례, 조촌 등이 신사가 세워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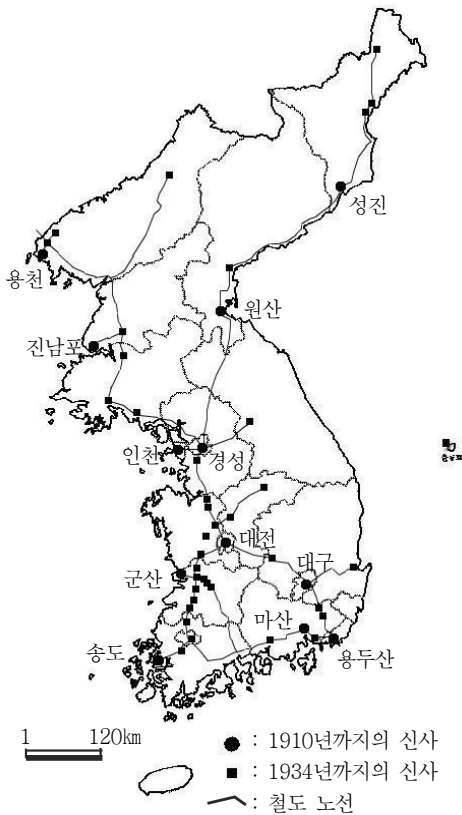
시들이다.

한편, 주요 철도의 간선철도들이 놓인 후에 그 종점이거나 중간의 주요 도시들에도 역시 신사들이 세워졌다. 예를 들면, 충북선이 놓이면서 청주와 충주가, 그리고 기존의 경원선이 연장되는 과정에서의 청진, 나남, 회령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미루어 일본인들은 한일병합 이후에 대규모로 조선에 입국하면서 대부분 철도가 지나가는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일제는 일종의 ‘조선신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선 전역을 이 그물망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처럼 식민통치를 쉽게 하도록 만든 철도인데도 일본의 소위 ‘식민지 은혜론’(한일비교문학연구회 편, 2005, 179-198)¹⁶⁾은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표 2).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들을 주로 철도가 지나가는 도시들로 삼았으며, 이 철도 노선에서 벗어난 도시들은 차후에라도 간선철도를 설치함으로써 서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일제가 조선의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건설한 철도들은 사실상 조선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내륙과 해안의 교두보들을 안팎으로 촘촘히 연결한 일종의 그물망이었다면, 신사는 이 교두보가 안전하게 확보되었음을 기념하는 일종의 상징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철도 노선의 연장을 고려할 때, 일본인들의 본격적인 조선으로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일본인들의 거주지도 해안의 항구도시에서 내륙의 대도시나 신흥도시들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신사 조성의 중요한 활력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1920년대 말까지 남산에 세워진 조선신궁(김승태, 1987, 297)을 비롯하여 일제는 조선 전역에 약 280여 개의 신사(神祠들을 포함)들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부터 神社를 설립 및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이보다 격이 낮은 神祠들을 설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더군다나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1면 1神社主義’를 표방하면서 산간벽지에 이르



(자료 : 小山文雄, 1934, 神社と朝鮮, 朝鮮佛教社, pp.124-128 참고)
 그림 1. 조선신사 네트워크(1934년 현재)

표 2. 광복 이전의 철도 노선과 신사

철도명	설립년도	구간	신사가 세워진 도시	비고
경인선	1900	경성-인천	경성, 인천	
경부선	1905	경성-부산	부산, 대구, 대전, 조치원, 천안, 성환, 수원	
마산선	1905	마산-삼랑진	마산, 삼랑진	
경의선	1906	경성-의주	개성, 해주, 신의주, 의주, 용천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임시 군용철도
호남선	1914	대전-목포	서수, 이리, 김제, 정읍, 장성, 광주, 나주, 목포	
전라선	1914	이리-전주	이리, 대장, 조촌, 전주	
	1931	전주-남원	남원	
	1936	남원-순천	순천	
경원선	1914	경성-원산	원산	
충북선	1920	조치원-청주	조치원, 청주	
	1928	청주-충주	충주	
진주선	1923	진주-마산	진주	
경춘선	1939	경성-춘천	춘천	

자료 : <http://www.korail.go.kr> 정리

켰다. 이런 맥락에서 일제는 신사마다 社格을 두어 조선신궁을 정점으로 다른 신사들이 그 아래에 속하도록 하면서 신사들을 서열화시켰다. 또한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이른바 ‘皇民化運動’을 시점으로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학교와 교회까지도 신사참배토록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그들은 경찰력을 동원해서까지 그들의 권력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였다(전주서문교회 100년사, 1999, 380).¹⁷⁾ 이와 함께 백제의 옛 도읍지인 부여의 扶蘇山에 扶餘神宮을 만들기로 계획하였던 것도 이러한 내선일체의 정신을 드높이려는 목적이었다(손정목, 1987, 123-124; 山口公一, 1998, 133-139). 그럼으로써 이제 신사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닌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기호로서 조선인들에게 각인되었다.

일제가 식민 통치 기간 동안 한반도의 거의 모든 面들에 신사를 설치한¹⁸⁾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과 같이 조선에 대한 일왕의 직접적인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신 신사를 설치함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적 네트워크를 연결하였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일제는 자국에 확립한 ‘국가신도 네트워크’를 ‘조선신사 네트워크’와 연결시킴으로써 일종의 조일 신사 네트워크를 확립하였다.¹⁹⁾ 일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內地延長主義를 시도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조선, 만주, 중국, 대만을 연결하는 ‘동북아 신사 네트워크’의 완성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신사는 그들이 지배하는 영역을 상징해주는 공간 지배 기호였으며, 나아가 조선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고안한 전략적 구성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제는 신사를 통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는 공간의 정치를 시도하였다.

2) 시각적 지배 記號로서의 朝鮮神社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도시들에서 신사가 세워지는 공간적 확대 과정은 철도 노선과 연계된 일제의 공간적 지배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신사가 세워진 특정 장소에서도 일제의 이러한 전략적인 측면이 투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신사가 입지한 곳들이 대부분 숲으로 둘러싸인 장소였다면(阿部正路, 2000, 134; 박규태, 2003, 72, 168-175; 박규태, 2004, 260; 박규태, 2005, 5-11), 조선에서는 이와 달리 丘陵(손정목, 1987, 106; 김승태, 1987, 320-321; 하시아 히로시, 2004, 98) 등지에 대부분 입지하고 있어 두 나라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탁월한 조망권

이라는 측면에서만 비교하더라도 일본의 신사는 숲으로 둘러싸여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반면에, 조선의 신사들은 도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구릉에 입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표 3).

일본의 국가신도체제하의 신사들은 성역을 숲으로 차단함으로써 신성성을 확보해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런데 조선신사들에서는 이러한 신성성 이외의 또 다른 장치가 더 필요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조선신사들의 구릉 지향성 입지를 통해 탁월한 조망권을 얻으려던 일제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일제가 남산에 세운 조선신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경복궁 앞에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과시하였다.(윤홍기, 2003, 141-147). 이와 같은 사실에서 유추하여 조선총독부를 평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제의 시각적(상징적) 지배전략이라고 한다면, 조선신궁은 남산의 높이를 활용한 입체적인 차원의 시각적 지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제가 경복궁 앞에 세운 조선총독부를 통해 그만큼 뛰어난 전시적 파급효과를 얻었다면, 조선신궁이 갖는 시각적·상징적 의미 역시 그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기대 이상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일제의 분명한 식민지 지배 의도를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신사를 통해 식민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조선인들에게 과시할 시각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였다.

이제 조선신사는 순수한 종교경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감시기구라는 메시지를 내포한 상징적 기호(의미체)이면서 종교시설로서의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공간·시각적 상징성과 결합된 정치·사회적 지배도구였다. 다시 말해서 조선신사란 종교를 빙자한 식민지의 상징물이자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감시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신사들의 본전에 배치된 신들의 대부분이 일제의 군국주의적 지배 집단의 성향에서 비롯된 天照大神이나 메이지 천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사가 갖는 정치·사회적 지배도구로서의 성격을 확인할

표 3. 조선신사들의 입지 유형

도시\구분	지형적 입지 유형	숲 또는 공원 입지	일인 거주지와 인접	기타
청진	구릉	o	o	
나남	구릉	o	o	
성진	구릉	o	o	
북청	구릉	확인 안됨	o	
함흥	구릉	o	o	
원산	구릉	o	o	
의주	구릉	o	o	
신의주	구릉	o	o	
정주	구릉	o	o	
선천	구릉	o	o	
신안주	구릉	x	o	
평양	구릉	o	x	
진남포	구릉	o	o	
겸이포	구릉	o	o	
황주	구릉	o	o	
사리원	구릉	o	x	
해주	구릉	o	o	
철원	구릉	o	o	
강릉	구릉	o	o	
춘천	구릉	o	o	
경성	구릉	o	o	
수원	구릉	o	o	
충주	구릉	o	o	
포항	구릉	o	o	
상주	구릉	o	o	읍성 안
조치원	구릉	o	o	
대전	구릉	x	o	
공주	구릉	o	o	
강경	구릉	o	o	
군산	구릉	o	o	
이리	구릉	o	o	
대구	구릉	o	o	
부산	구릉	o	o	
진해	구릉	o	o	
마산	구릉	o	o	
진주	구릉	x	o	축석루 안
남원	구릉	o	x	
광주	구릉	o	o	하천 건너
나주	구릉	o	x	읍성 밖
목포	구릉	o	o	
해산진	구릉	o	o	
강계	구릉	o	o	
김제	구릉	o	o	
인천	구릉	o	o	

자료 : 조선총독부, 1925, 「一万分一地形圖集成」, 경인문화사 참고 정리

필요가 있다.²⁰⁾

신화적 존재이면서 군국주의자들에게 이용된 天照大神과, 征韓論이 대두되면서 신으로 승격된 메이지 천황을 조선 신사들에 의도적으로 안치했다는 점에서 일제의 진정한 의도를 읽었던 조선인들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인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위한 감시기구로 각인된 신사 앞을 지나면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소위 신사 참배 행위는 이런 반감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사는 지배 권력의 소재를 조선인들에게 알려주었음은 물론, 신사야말로 도시를 계속 응시하는 통제와 감시의 눈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여기에서 응시의 주체는 일왕이었고, 객체는 조선인들이었다. 일제는 이런 의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탁월한 조망권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구릉을 가장 적합한 상징적 전시효과의 장소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도시들에 세워진 신사들은 일제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장소로서 구릉에 세워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일제의 국가신도는 한반도에서 조선인들의 유교와 관련된 기억 또는 흔적들을 해체하면서 새롭게 발명된 공식적 기호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을 감시하는 감시체계로서 작동하였다. 신사에 모셔진 메이지 천황은 시선의 주체였고, 조선인들은 천황의 응시대상이 되도록 강요당하였다. 여기에서 천황은 조선의 특정 도시나 시골에 사는 모든 개개인의 조선인들을 꿰뚫어 보는 유일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응시의 주체로 상징되는 존재였다면, 신사는 모든 조선인들이 일왕에게 가시화되게 만드는 매개체였다. 일제의 이러한 의도가 성공했다면, 일제의 국가신도는 현대 한국 종교의 판도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신사가 식민지 지배의 주체를 위한 일종의 식민지 지배경관이자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없어져버린 신기루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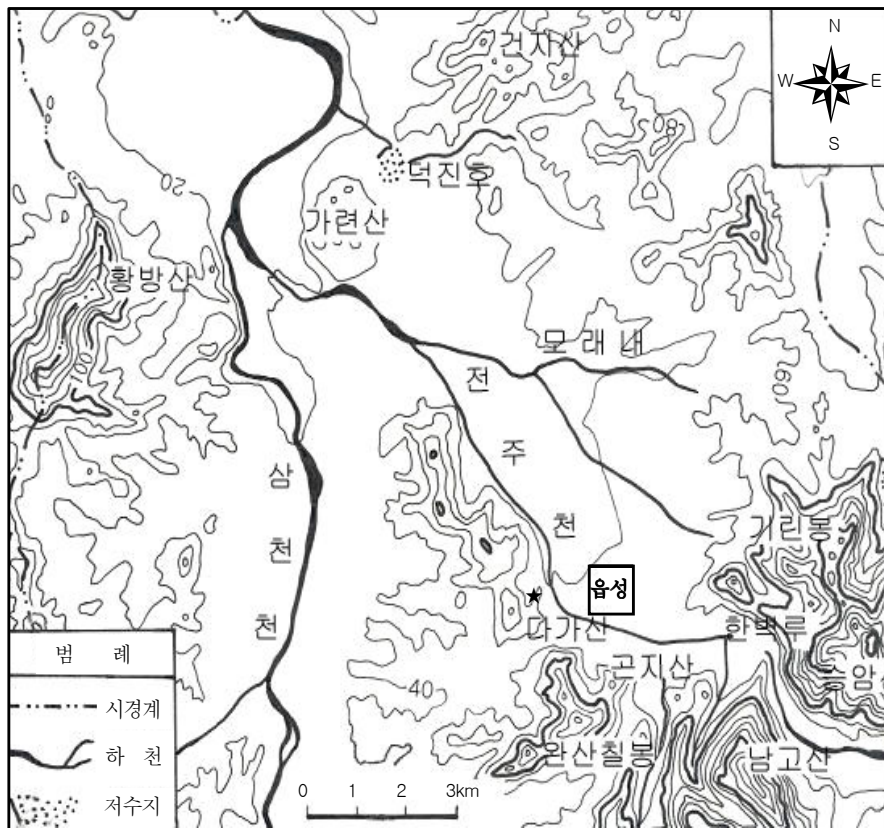


그림 2. 다가산의 전주신사(★)와 전주읍성(□)

존재였다. 신사를 세운 주체들은 초기에 종교가 아니라 말로 조선인들에게 접근하였지만, 그 신사에 참배를 강요당하는 입장에서는 지배 권력의 상징기호로서 정신세계까지 지배하려는 간접적 수단이었음을 끊임없이 상기토록 하였다. 따라서 신사라는 텍스트를 만든 주체(일왕 또는 일제)의 의도와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조선인)의 입장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달리 말해서 한국인들은 신사를 식민지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려던 일제(저자)의 의도를 독자의 입장에서 정확히 읽어냈고, 광복이 되자마자 신사의 존재 의미가 독자들에게 의해 상실되면서 곧바로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의 국가신도는 한국인들에게 종교로서 접근하지 못하고 저항 담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된 근대의 신흥종교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도는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도교(천주교와 개신교를 모두 포함)가 한국에서 종교로 받아들여진 경우와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똑같이 제국주의를 표방하였으면서도 같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 속한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신도를 철저히 부정되고 굴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하시야 히로시, 2005, 94-99).

4. 全州神社의 지배전략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신사를 세우면서 각 도시마다 서로 다른 사회적(정치·경제·지리·종교·거주지 등)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일제는 어떤 도시에는 神宮을 또 다른 도시에는 神社나 神祠 등을 세웠다. 全州神社 역시 이런 맥락에 의해서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바로 한국인 협력자들에 의해 多佳山의 정상에 도리이가 먼저 세워졌고, 1914년에 전주신사가 완공되었다²¹⁾(그림 2).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조선신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시각적 지배전략이 전주신사에서도 잘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일제는 1934년까지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전라북도의 호남평야지대에 위치한 도시들에 총 9



그림 3. 전라북도 신사 분포와 철도 노선(1934년 현재)

개의 신사들을 세웠다(정광하, 1997, 325).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일제는 호남평야지대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군산항이 개항된 후, 전주에서 군산까지 소위 全群道路를 개설하면서 대규모의 일본인 농장들과 관개시설 및 정미소들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입장에서는 벼농사와 관련된 경제적 이윤 때문에 미곡 반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도시들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기존의 군산과 전주는 물론, 삼례, 조촌, 대장, 이리, 서수, 김제, 태인, 정읍 등에도 일본인들이 진출함으로써 신사를 세웠고, 호남선과 전라선 역시 이 도시들을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북도 신사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 그럼으로써 일제의 의도대로 신사를 통한 전라북도의 공간 지배 전략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주신사에 내재된 일제의 시각적 지배전략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전주신사의 입지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전주신사가 세워졌던 다가산 정상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전주읍성의 서문 밖이라는 접근성과 더불어 그 높이(약 65m) 때문에 전주시를 한눈에 조망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동학혁명 당시에도 다가산 일대는 관군들이 전주읍성을 장악한 동학군들의 동정을 감시하고 포대를 설치해 공격함으로써 읍성을 탈환하는 등 군사전략적인 장소로 이용하였다(최진성, 2003, 42).

또한 다가산은 전주에 이주한 일본인들의 거류지와 가장 가까운 장소였다. 동학혁명의 여파로 서문 밖 주변이 별판이나 다름없게 되자 일본인들이 거류하기 시작하면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본인들의 거류지는 주로 서문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일대를 기점으로 전주읍성의 중심지까지 일본인들은 그들의 거류지는 물론, 상가도 확대하였다(최진성a, 2004, 220). 일제가 경성에 세운 조선신궁 역시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남산 산록의 '진고개' 일대는 일본인들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던 거류지였기 때문에 신궁을 세웠다(하시야 히로시, 2004, 35-39). 이와 같이 다가산 주변 일대는 자연스럽게 일제의 식민지 경관들(일본인 거류지, 驛舍, 경찰서, 보건소, 교육기관, 금융기관, 상업회의소 등)이 집중된 장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주의 경우에도,

앞 장에서 제시한 <표 3>에서와 같이 1934년까지 전국의 신사들 주변에 대부분 이러한 식민지 경관들이 인접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정광하, 1997, 320).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인 거주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형성되었던 일본인들의 거주지는 일종의 신시가지로서 정치·경제·사회적 중심지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들마다 신사가 위치한 구릉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성지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심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주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유교와 불교를 대신해 천주교와 개신교 및 신도 등 외래종교끼리 헤게모니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신도를 제외한 다른 종교경관들은 이미 전주의 중요한 산과 구릉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도는 기존의 다른 종교들이 선점한 장소와는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장소를 찾아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최진성b, 2004, 56-62).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주도적이었던 불교와 유교 등의 경관들이 대부분 조선인 거주지 내부 또는 거주지와 인접한 장소에 세워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전주신사 건축물의 배치 방향이 東向이었다. 다가산이 전주읍성의 서문 밖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읍성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신사의 전면을 잘 보일 수 있게 하려면 동향이 가장 적당한 방위였다. 따라서 전주신사에 안치된 神龕(천조대신과 메이지 천황)의 응시의 대상인 조선인들에게 신사가 잘 보일 수 있는 방향과 장소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다른 예로서, 군산의 월명공원에 세워졌던 군산신사의 경우에도 군산 시가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남향으로 배치하였으며, 경성의 남산신궁 역시 그 정면을 북향으로 배치하여 시가지 어느 방향에서도 잘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 미루어 조선신사들은 대부분 도시의 지형적인 요인과 함께 도시의 공간 구조까지 고려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제의 시각적 지배 전략이 건축물의 방향에까지도 작용하였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입지요인들에 의해 전주에 서는 다가산이 신사의 최적지로 선정되었다고 할



(다가산 좌측으로 전주천을 건너면 전주읍성의 서문이 있었음)
 그림 4. 전주신사가 세워졌던 다가산 정상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일제가 의도한 대로 다가산 정상에서 그들의 지배권력이 지켜볼 수 있는 탁월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전주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시각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전주신사는 감시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그림 4).

그런데 전주신사 역시 다른 신사들과 마찬가지로 광복이 되자마자 바로 해체되고 말았다(하시야 히로시, 2004, 97). 전주에서도 신사를 매개로 지배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가 시민들에게 읽혀졌기 때문에 상호공감대가 존재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²²⁾ 그래서 광복이 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였던 한국인들의 저항 담론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신사는 이 땅에서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전주서문교회 100년사, 1999, 430).

이러한 저항 담론들을 살펴보면 먼저, 다가산의 수종 변화에서 잘 나타난다. 일제강점기에 다가산 공원에 심어졌던 빛나무는 일제를 상징하는 잔재라고 해서 거의 뽑혀지고 다른 수종(이팝나무, 단풍나무, 낙엽송 등)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전주의 다가산 정상에 6·25 때 참전한 학도병들을 기리는 충혼탑(1962년)과 이 지역의 민족시인인 이병기(호는 가람)의 기념시비(1969년)가 세워져 있다. 이 가람시비에는 ‘시름’이라는 제목의 시가 새겨져 있는데, 가람시비 건립 위원회에서 이병기의 대표적인 저항시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시비에 기록될 수 있었다고 한다.²³⁾ 마지막으로, 충혼

탑은 남북한 사이의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한 갈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전에 우선 민족 내부적으로 치료해야만 했던 흔적이 이 탑으로 재현되었다. 그것도 전주신사가 세워졌던 자리 바로 앞에 거대한 구조물로 세워져 있어서 이전의 기억을 망각시켜 주는 상징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전주신사가 있었던 터마져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주신사의 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⁴⁾ 이와 같이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일제 잔재에 대한 저항 담론들을 통해서 다가산의 장소 이미지는 계속해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 결국 일제의 국가신도는 조선인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일종의 타자였으며, 전주신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주신사가 세워졌던 다가산은 동학혁명 때에는 관군들이 동학도들을 진압하기 위한 포대가 배치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신사가,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민족경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전주신사가 세워진 다가산의 장소 이미지 또는 장소성은 권력 주체의 변동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일제는 군대와 경찰의 힘을 빌려 물리적으로 조선을 지배하였다면, 신사를 통해서는 공간·시간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감시 도구로 삼았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제는 공간적으로 조선의 해안과 내륙의 중요 도시들마다 신사를 세움으로써 ‘조선신사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먼저 신사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이들과 내륙의 주요 도시들 사이에 연결한 철도 노선들을 따라 도시들을 연결시킴으로써 해안에서 내륙까지 일종의 그물망을 촘촘히 형성하여 전국의 모든 도시들을 공략하였다. 또한 지배전략에 의해 각 도시들마다 조망이 탁월한 구릉을 찾아서 신사를 세웠다. 푸코가 언급한 ‘감시시설’로서의 신사는 일본인 거류지가 있던 신시가지와 인접하면서도 조망이 탁월한 장소를 차지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건을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사 정면의 방향까지 시가지 쪽으로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 내에서 조망이 탁월한 신사는 일본인 거류지를 비롯한 식민지 경관들(驛舍, 경찰서, 보건소, 학교, 우체국, 관사, 일본인 거류지 등)과 인접한 장소에 세워졌다. 그들의 종교 성지로서 보호받을 수 있었음은 물론, 이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하기에 편리한 측면이 강조되었다. 반면에 기존의 유교 및 그리스도교 경관들은 조선인들의 거주지 내부 또는 그 주변에 있었던 관계로 신사가 세워진 장소와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

광복이 되자 한국인들 사이에 식민지 시대의 일제 잔재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저항 담론이 대두되면서 신사를 비롯한 식민지경관들은 해체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신사는 ‘종교경관을 방자한 식민지경관’이라는 조선인들의 인식 때문에 일제와 조선인 사이에는 상호텍스트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담론이 지배하는 한 신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었는데, 텍스트 저자(일제)의 의도와 상반된 독자(조선인)의 해석에 의해 신사는 해체되었다. 결국 일본의 국가신도는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드는 데 성공하지 못한 他者였다.

전주신사 역시 일제의 감시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장소로 다가산의 구릉 정상이 선택되었지만 일제에 대한 저항 담론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전주신사 역시 시민들에 의해서 해체되었고, 현재는 그 신사 터마저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가산의 뱃나무가 일제를 상징한다 하여 뽑아 버리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였다든지 또는 충훈답이나 민족시인의 기념비 등의 설립을 통해 그 장소성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럼으로써 다가산은 일제의 식민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는 식민지경관이,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민족 정체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민족경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신사가 세워진 다가산의 장소 이미지는 정치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註

1) 19세기 중반 이래 1세기 동안 일본을 지배한 담론은

‘征韓論’이었다. 즉 17-18 세기 일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역사 속의 조선이란 한마디로 가여운 존재로서 중국보다도 뒤떨어져 있다는 조선 멸시관이,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신일본의 조선 침략론은 하나의 담론으로 되어 있었다(박영재, 1996, 1).

- 2) 신도는 신사신도와 국가신도(State Shintoism) 및 교파신도(Sectarian Shintoism, 종파신도)로 나눌 수 있다. 일본 역사의 초기부터 존재해온 신사신도는 아직도 신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황실과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지금은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는 국가신도는 메이지유신을 통해 천황중심체제인 근대 국가를 지향한 근대일본의 신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창출된 종교문화이며 사회체제였다. 교파신도는 19세기 이후 13개 종파로 시작된 새로운 운동으로 현재는 더 많은 종파를 이루고 있으나 그 추종자는 주로 어떤 한 신사신도의 씨족에 속해 있다(신서균, 1999, 79-112; 이회복, 2000, 53-90; 루스 베네딕트, 2002, 110-111). 일본 거류민들의 신사 설립에 의한 국가신도의 침투와 함께 교파신도도 1893년부터 조선에 침투하였다(김승태, 1986, 7-14).
- 3) 『一万分一朝鮮地形圖集成』(朝鮮總督府作製, 1925)에 의하면, 수록된 66개 도시마다 신사의 위치가 기호(π)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을 근거로 도시에서의 신사 입지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전주, 경주 등은 지도가 없어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에서 이 도시들의 신사 위치를 확인하였다.
- 4)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이 일왕의 친정복고를 선언했을 때 상당수의 일반 민중은 새로운 정부에 의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리라고 기대했었지만, 민중의 생활양식이 파괴되고, 의무교육의 도입으로 높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아이들의 노동마저 빼앗기고, 징병의 임무를 지고, 이전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면서 즉각적으로 저항했다.
- 5) 메이지 시대 대부분의 개혁론자들의 신분은 봉건제 시대의 중하위급 무사들이었으며, 이들은 일왕의 권위 이용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 6) 후지타니는 신도의례보다 황실에서 행해졌던 의례행사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메이지 시대에 발명된 국가의례들이 마치 이전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던 당시 위정자들의 노력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7)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손정목, 1987, 105-162; 김승태, 1987, 275-343; 山口公一, 1998, 128-157; 村岡典嗣 지음, 박규태 옮김, 1998, 297-302.
- 8) 일제는 인접식민주의, 피식민국가와의 인종적문화적 공통점, 서구의 중앙집속에서의 식민지 획득이라는 특수성이라는 점에서 유럽의 식민주의와 확연히 달랐다. 또한 서구의 ‘동화’는 기본적으로 ‘문명동화’를 목표로 했기에 법제를 통한 ‘동화주의’의 실현에 자신감을 가졌던 반면, 일제의 경우 ‘문명동화’를 중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한 ‘민족동화’를 지향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었다.

- 9) 푸코는 통상적인 권력, 즉 권력자가 강제력을 통행하여 예속된 자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으로 보는 관점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권력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니체의 관점을 참조하여) 개인의 몸에 작용하는 일정한 관계망 속에서 권력의 작용을 살피고 있다.
- 10) 국가신도에서 신사를 신도로부터 분리시키고 조상신을 제사하는 장소로서 건국의 조상인 천황송배의 거점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파신도를 종교로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국가신도를 빙자한 교파신도적 성격을 강조하여 천황제의 송배신앙으로 교화시키는 구실을 마련하였다.
- 11) 일정한 지역을 개방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허용한 제한지역으로, 외국과의 통상이 활발해지면서 개항장은 항구에만 한정되지 않고 내륙에도 開市場·開放地·雜居地의 형태로 설정되었다. 개시장은 평양의주·용암포·양화진 등처럼 외국인의 상업 활동과 거류를 허용한 곳이고, 개방지는 인천 월미도와 서울의 용산처럼 일정지역에 한해 외국인의 자유로운 거주·활동을 허용한 곳이며, 잡거지는 개시장처럼 외국인의 거류와 상업 활동을 허용한 곳이었다.
- 12) 부산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 체결로 개항했으며, 용두산 아래 초량은 숙종대부터 왜관(倭館)이 있던 곳으로 이를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일제는 1905년 전후 경부선 철도 개통과 관부연락선(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던 배) 취항, 부산항 축항(築港)공사 등 일련의 사업을 통해 부산을 한국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다(<http://blog.daum.net/z0223/83373>).
- 13) 목포는 1897년 개항했으며 송도공원에 목포신사를 세웠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영사관이 이사청으로 개편되었고, 이 건물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를 포함한 일본 기관들이 형성되었다(목포향토지 제1집, 역사편, 1985, 44, 46 지도; 고석규, 2004, 49, 244, 303-305).
- 14) 달성은 본래 삼국시대의 성곽인데, 1906~07년에 성곽을 해체하고 도로를 만들어 공원으로 사용하다가 일본거류민단이 이곳에 신사(神社)를 세웠다(<http://blog.daum.net/z0223/83373>).
- 15) 일본은 러시아 전쟁 이전부터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해서 인천과 부산을 잇는 연결 철도를 부설하려고 하였다.
- 16) 일본이 식민통치 시대에 좋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용어로, 임진왜란 후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조선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 덕분에 조선이 재건되었으니 일본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 17) 전주 신흥기전 학교의 신사참배 거부에 대해 일본 경찰은 1937년 9월 6일 오전에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전교생을 이끌고 다가산 위에 있는 전주신사로 올라갔다. 일본 경찰들이 신사에 대한 경례를 호령하자 신흥학교 학생들은 경례를 묵살하고 퇴장하였고, 기전학교 학생들은 땅에 주저앉아 울어버렸다. 이 때문에 두 학교는 폐교당하여 신흥학교 학생들은 고창고등보통학교로, 기전학교 학생들은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로 전학 보냈다.

- 18) 1945년 6월 말 현재, 官弊社 2, 國弊社 8, 神社 69, 神祠 1,062개소 등이 있었다.
- 19) 일제는 조선만이 아니라 대만과 만주에도 ‘신사 네트워크’를 만들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 네트워크를 완성하려고 하였다.
- 20) 조선신사에서 祭神 문제는 조선총독부 내부의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조선인에게 송경토록 하였다. 그래서 토요일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등은 제외하고 天照大神과 메이지 천황으로 결정하였다(김승태, 1987, 294-295).
- 21) 새전북 신문, 2004년 6월 11일자에 의하면, 1914년 당시 전라북도 장관인 이두항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전주신사 및 공원건설 위원회를 구성해 9,000원을 거출하여 전주신사를 완공했다.
- 22) 동아일보 1925년 1월 14일자에 의하면, ‘풍치중심 전주호안공사’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5년 전에 대홍수로 수백호 인가가 유실되었는데, 호안공사가 다가산 주변에만 국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연유인지 다가공원과 전주신사의 풍치를 돕기 위하여 홍수와는 무관한 모양이다.”라고 비난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로 미루어 당시 전주시민들의 다가산과 전주신사에 대한 저항 담론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23) 이병기 시인의 제자로 가람시비 설립을 주도했던 최승범(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과의 면담에 의함.
- 24) 한국일보 2005년 4월 20일자에 의함.

文 獻

- 고석규, 2004,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순전·조성진, 2004, 명치·대정기 수신서에 투영된 신도정책, 일어일문학, 21(1), 231-244.
- 김승태, 1986, 일본 신도의 침투와 신사정책, 한국기독교연구회소식,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7-14.
- 김승태, 1987, 일본 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신사문제, 한국사론, 16, 275-343.
- 김재우, 1987,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루스 베네딕트, 2002,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 목포문화원, 1985, 목포향토지 제1집(역사편)
- 박경식, 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이출판사.
- 박규태 등 15인 공저, 2004, 일본을 강하게 만든 코드, 나무와 숲.
- 박규태, 2003, 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 종교로 읽는 일본인의 마음, 책세상문고.
- 박규태, 2005, 일본의 신사, 살림출판사.
- 박영재, 1996, 근대 일본의 침략주의적 대외론과 한

- 국론, 한국사시민강좌, 19, 일조각.
- 山口公一, 1998, 전시기(1937-45)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 한일관계사연구, 8, 한일관계사학회, 128-157.
- 손정목, 1987, 일제하 부여신궁 조영과 소위 부여신도건설, 한국학보, 13(4), 123-156.
- 손정목, 1987, 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신사참배 강요정책연구, 한국사연구, 58, 한국사연구회, 105-162.
- 신서균, 1999, 일본문화와 신도사상의 조망, 진리논단, 3, 79-112.
- 신주백, 2004, 일본의 '동화'정책과 지배전략, 강만길,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 阿部正路, 2000, 신사문화를 모르고 일본문화를 말할 수 있는가?, 도서출판 계명.
- 양운덕 (역), 2003, 미셸 푸코, 살림.
- 오에 시노부, 2001,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소화.
- 윤흥기, 2003, 경복궁과 구 조선총독부 건물 경관을 둘러싼 상징물 전쟁,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우리 국토에 새겨진 문화와 역사, 논형, 147-156.
- 이어나가 사부로, 2003, 일본문화사, 까치글방.
- 이정인, 1976, 개항 100년의 회고, 명대, 7, 명지대학 학도호국단, 32-39.
- 이회복, 2000, 일본 신도의 이해, 일본사상, 2, 53-90.
- 임동권, 2004, 한국에서 본 일본의 민속문화, 민속원.
-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1999,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콤팩출판사.
- 靑野正明, 2003,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과 「경신승조」, 경제경영, 36(1), 계명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335-342.
- 村岡典嗣, 1998, 일본 신도사, 예문서원.
- 최석영, 1998, 일제 식민지기 무속조사와 식민정책, 일본학년보, 7, 163-234.
- 최원규, 1987, 일제 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 최정우 (역), 2003, 바르트와 기호의 제국, 이제이북스(Peter Pericles Trifonas, edited by Richard Appignanesi, 2001, Bartes and the Empire of Signs, Icon books).
- 최진성, 2003, 천주교경관의 해석: 전통성당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5(3), 35-48.
- 최진성a, 2004, 종교경관의 장소와 산: 전주를 중심으로, 지리과교육, 7, 213-225.
- 최진성b, 2004, 장소의 종교적 관성: 전주시 승암산의 종교경관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6(2), 53-65.
- 하시야 히로시, 2004,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 한상일, 2004, 제국의 시선, 새물결.
- 한석정 (역), 2003,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이산, 27-28 (Takashi Fujitani, 1996, Splendid Monarchy: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한일비교문학연구회 (편), 2005, 비교문학자가 본 일본, 일본인, 현대문학.
- 小山文雄, 1934, 神社の朝鮮, 朝鮮佛敎社.
- 朝鮮總督府, 1918,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京仁印刷所.
- 朝鮮總督府作製, 1925, 一萬分一地形圖集成, 京仁印刷所.
- Chung-Myun Lee, 1989, A Study of Shinto Shrines in Ancient Japan with Reference to Korean Migration,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14, pp.1-30.
- Lee, C. M, 1989, "A Study of Shinto Shrines in Ancient Japan with Reference to Korean Migration,"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14, pp.1-30.
- Shinji Ueda, 2004, Japanese Imperialism: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the Shinto-Empror Ideology, *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 89-113.
- 동아일보, 1925년 1월 14일자.
- 한국일보, 2005년 4월 20일자.
- 새전북 신문, 2004년 6월 11일자.
- <http://blog.daum.net/z0223/83373>.

(접수 : 2005. 10. 19, 채택 : 2005. 12. 10)